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님의 노래 김소월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그리운(화자의 정서, 임의 부재) 우리 님(시적 대상)의 맑은 노래(설명서에는 청각적 심상으로 나옴,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음)는

언제나(불변성) 제(화자, 자신을 낮춤) 가슴(마음, 내면)에 젖어 있어요(님의 노래가 언제나 화자의 마음에 남아 있음, 노래가 젖어 있다는 표현으로 보면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음)

▶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는 임의 노래

긴(그리움의 크기) 날(님의 부재로 인한 기다림의 시간)을 문밖(님의 부재로 인한 기다림의 공간)에서 서서 들어도(임의 노래를 들음, 그리움)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1연 1행의 변주, 님의 노래는 맑고 고운 속성을 가짐)

[해 지고 저물도록(시간의 경과) 귀에 들려요(그리움)]

밤들고 잠들도록(시간의 경과) 귀에 들려요(그리움)](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화자의 그리움 강조, 종결 어미 '-요' 반복)

▶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 노래가 흔들리다. 공감각적 심상)

내 잠(휴식, 재생의 의미)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그리워하다 잠이 듬)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화자의 외로운 처지, 독수공방)

내 잠은 포스근히(시적 허용) 깊이 들어요(설명서에서는 임의 노래로 위안을 받으며 '포스근히' 잠이 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임의 부재와 '포스근히'가 모순이라면 역설법)

▶ 임의 노래와 함께하면서 얻는 안정감

그러나(시상 전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임이 부재하는 현실 인식, 그리움의 이유)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현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임의 노래, 그리움의 이유,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를 모두 사용하여 그리움을 강조)

▶ 임이 부재하는 현실의 확인

- 김소월, '님의 노래'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전통적, 민요적, 여성적

■ 특징

- ①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② 민요적인 율격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 ③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④ 종결 어미 '-요'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 구조

- 1연: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
- 2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
- 3연: 임의 노래와 함께하면서 얻는 안정감
- 4연: 임이 부재하는 현실의 확인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언제나 헤어진 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 안 계신다. 그림다. 임이 같이 있을 때에 불러주던 임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내 마음에 있다. 임이 오시기를 긴 날 동안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가 마음속에 저절로 들린다.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린다. 밤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귀에 들린다. 곱게 작아졌다 커졌다 멀어졌다 가깝게 들리는 임의 노랫가락에 나는 깊게 잠이 든다. 임이 안 계신 고적(孤寂)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임의 노랫가락을 들으며 포근하게 잠이 든다. 그러나 자다 깨면 임의 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린다. 들으면 듣는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다. 그래서 다시 문 밖에 서서 임이 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임의 맑고 고운 노래를 듣는다.

▣ 본문 감상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는 화자가 언제나 그리운 임의 맑은 노래를 잊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리운’은 화자가 현재 임과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맑은 노래’는 임의 인품이나, 임이 하신 말 등으로 임이 화자에게 한 것으로 모든 긍정적인 내용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가슴’은 ‘마음’을 의미하는 관습적 상징이다. ‘젖어 있어요’는 ‘남아 있다’ 또는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시적으로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 밤 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는 낮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임이 떠오르거나 임을 생각하며 지낸다는 말이다. ‘긴 날’의 ‘날’은 해가 있는 낮을 말한다. ‘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볼 때에 낮이 긴 여름일 가능성이 있고 화자의 심리적인 표현으로 보면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이 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맑은 노래’는 ‘고운 노래’로 바뀌었다. 이는 ‘님의 노래’의 다른 특성이다. ‘님의 노래’는 ‘맑고 고운’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들려요’는 화자가 의식적으로 ‘님의 노래’를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나고 ‘님의 노래’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는 말이다.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 고적(孤寂)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는 임의 노래를 들으며 혼자 잠을 자도 깊고 포근하게 잠든다는 말이다. ‘고이도 흔들리는’은 임의 노래를 형상화한 것으로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이도’는 ‘곱게’로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흔들리는’은 아기가 잘 잘 수 있게 아기를 흔들어 주거나 아기를 담고 있는 요람을 흔드는 것처럼 화자가 잠을 잘 자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르게 본다면 노래 소리가 작게 또는 크게 또는 멀게 또는 가깝게 바뀌어 가며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들린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적(孤寂)한 잠자리’는 임이 없이 혼자 자는 잠자리를 말한다. ‘포스근히’는 화자가 변용한 시어로 포근함이 스며들어 점점 더 포근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는 잠을 자다 깨면 임의 노래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나’

는 앞의 2, 3연에서 화자가 맑고 고은 '님의 노래'를 가지고 있고 잊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자다 깨면'은 화자의 상태를 말한다. 화자는 '밤'에 '포스근히' 잠을 잔 상태이다. 그러다 잠을 깨면 '님의 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라고 한다. '잃어버린다'는 '노래'와 같은 무형의 것이 아닌 유형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형의 것은 '잊는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화자는 '님의 노래'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와 '잊고 말아요'를 사용하여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말로 모두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을까? 아니다. 하나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자다' 깬 상태에서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비어있어야 이를 찾고 기억하기 위해 화자는 '긴 날'부터 잠들기까지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1연의 '언제나' '가슴에 젖어' 있는 '님의 노래'가 스스로 화자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화자는 매일매일 이렇게 임의 맑고 고은 노래를 들으며 슬픔에 빠지지 않고 임을 기다리는 것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수의 비밀 한용운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나(화자)는 당신(시적 대상)의 옷(화자의 정성, 사랑,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는 소재)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습니다’의 경어체 사용, 대상에 대한 존중의 표시)

심외(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도 짓고 도포(통상에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임을 위한 옷 열거)

짓지 아니한 것(미완성)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옷의 완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

▶ 옷을 지어 놓았으나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미루는 화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음)가 많이 묻었습니다.(그리움 형상화)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 두고 한 까닭입니다.(주머니를 완성하지 않은 이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다른 이들의 오해) 그러한 비밀(주머니를 완성하지 않은 이유)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플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수를 놓으면서 아프고 쓰린 마음을 달랠, 추상적인 대상인 마음을 형상화함),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주머니에 수를 놓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이 회복됨)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임 또는 임과의 만남)이 없습니다.(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드러남)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능력 부정)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의지 부정) 것입니다(역설적 표현, 옷의 완성을 지연시킴으로써 재회를 기약함)

▶ 주머니를 짓다가 놓아두는 까닭

- 한용운, '수의 비밀'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여성적, 역설적

■ 특징

- ① 경어체의 사용 : '~습니다'의 경어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성스럽고 간곡한 마음을 드러냄
- ②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 임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의 마음을 임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빗대어 구체화

③ 역설적 표현의 사용

④ 산문적인 운율 : 줄글 형식의 산문시 운율이 나타남

■ '수놓기'의 의미

① 수놓기 : 화자의 아픔을 정화하는 행위. 임을 기다리며 임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는 행위

② 수놓기의 완성 : 기다림의 종결을 의미. 그래서 화자는 일부러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음

③ 수의 비밀 : 주머니에 수놓는 것을 완성하지 않는 비밀. 옷을 다 짓지 않는 이유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마음, 수(繡)에 담긴 비밀

■ 구조

- 1연: 옷을 지어 놓았으나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미루는 화자
- 2연: 주머니를 짓다가 놓아두는 까닭

■ 해제

이 시는 제목 그대로 '수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당신'의 옷을 짓되, 그 마지막 과정인 주머니에 수를 놓지 않는 것을 가리켜 '수의 비밀'이라 말하고 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아직 이 세상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는 까닭에 주머니를 다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히 임의 옷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 둠으로써 임과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이 화자의 마음임을 읽을 수 있다. 경어체 서술 형식과 고백의 의도가 잘 어우러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만해 한용운의 시 중에서 시인의 상상력의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님을 기다리는 과정의 중요함을 제시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의 첫 3행에서 서정적 자아는 님의 옷을 다 지어 놓았다는 것과 아직 짓지 않은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서정적 자아에게 '수 놓기'는 님을 기다리는 한 방법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애정 표시의 객관적 상관물일 수 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님을 위해 수를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 놓기란 서정적 자아가 님을 찾아 가는 행위 곧 시인의 구도적 상상력의 활동 그 자체이다.

만해는 수 놓는 과정을 곧 자신이 시를 써 나가는 상상력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수 놓는 바늘'은 작은 주머니 위를 움직이며 자신의 사랑을 참을성 있게 완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 놓는 바늘은 님의 실상을 구현해 나가는 서정적 자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마음이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역동적인 완성의 과정이며, 이 과정이 '맑은 노래'와 같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끝부분이다. 시인은 '수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수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 두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첫째,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이 세상에는 아직 없다는 것이고, 둘째, 두고 두고 완성하고 싶다는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왜 그는 수를 짓다가 놓아 두는 것인가. 그것은 수를 놓으면서 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인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 놓기를 완결 짓는다는 것은 죽음 곧 님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다. 그가 이 기다림 곧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한 수 놓기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설령 그가 수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은 이 세상에는 아직 없는 결핍의 상황이므로 따라서 그의 기다림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수 놓는 과정을 통하여 시인의 역동적 상상력과 님을 기다리는 '과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2 윤사월 박목월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송화가루 날리는(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음)

외딴(외로움의 정서 환기) 봉우리(공간적 배경) - 원경

▶ 외딴 봉우리의 풍경

윤사월(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음) 해 길다(산의 해가 길다는 것은 봄이 완연해졌음을 의미)

피꼬리(봄을 알리는 존재) 울면(눈먼 처녀가 봄을 느끼게 됨) - 원경

▶ 봄을 맞은 피꼬리의 울음

산지기(눈먼 처녀의 아버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존재) 외딴집(외로움의 정서 환기, 세상과 단절된 공간, 눈먼 처녀의 처지)

눈먼(처녀의 처지, 연민의 정서 환기) 처녀사(단절된 공간에서 살고 있음, 시선의 이동) - 근경

▶ 외딴집에 사는 눈먼 처녀

문설주(눈먼 처녀가 있는 공간과 바깥세상의 경계)에 귀대고

엮든고 있다(바깥세상에 대한 처녀의 호기심, 동경, 욕망으로 처녀의 처지와 대비됨) - 근경

▶ 바깥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 박목월, '윤사월'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서경적, 향토적, 낭만적, 민요적

■ 운율 : 3음보를 기반으로 한 7·5조의 민요적 율격

■ 특징

- ① 한국적인 정적미, 애절한 분위기
- ② 간결한 시어
-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의한 전개
- ④ 민요조의 율격(3음보, 7·5조)

■ 제재 : 봄(초여름) 산 속의 정경

■ 주제 : 외딴 산중의 풍경과 눈먼 처녀의 애절한 동경과 그리움

■ 구조

- 1연 : 외딴 봉우리의 풍경
- 2연 : 봄을 맞은 피꼬리의 울음
- 3연 : 외딴집에 사는 눈먼 처녀
- 4연 : 바깥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 '눈먼 처녀'의 역할

이 시의 핵심적 장면은 3연과 4연의 '외딴 집 /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 대이고 / 엇듣'는 장면이다. 산 속에 고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처녀는 안타깝게도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처녀이다. 처녀는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치도 볼 수 없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녀의 행위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애미를 느끼게 하면서도, 자연의 일부가 된 존재를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자연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상상의 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 해제

이 작품은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서정과 정감을 탁월한 간결미로 인상 깊게 표현한 작품이다. 봄(또는 초여름) 산의 경관이 서경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눈먼 처녀의 모습에서는 애뜻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조용하고도 쓸쓸한 산중에 꾀꼬리 소리만이 들리고, 눈먼 처녀는 수선스레 나가지도 못하고 숨죽여 그 아름다운 소리만을 엇듣고 있다는 데서, 깊은 산중에 찾아온 늦봄의 이미지와 함께 처녀의 불행한 삶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모티프는 '송학가루'와 '꾀꼬리', 그리고 '눈먼 처녀'이다. 그런데 '송학가루'는 시각적인 것으로 '눈먼 처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 양자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꾀꼬리'의 울음소리이다. '눈먼 처녀'는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의해서만 윤사월의 무르익은 정경 속에 용해될 수 있기에, 꾀꼬리의 울음은 바로 그녀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시인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절제된 언어에 의한 간결하고 깨끗한 인상을 잘 살려 주고 있다. 또한 인상적 묘사 방식에 의한 한 폭의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경시의 특성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 이해와 감상

박목월의 초기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민요풍의 서정시이다. 초여름의 산경(山景)을 배경으로 눈먼 처녀의 애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는 꾀꼬리가 한 마리 나오고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꾀꼬리는 울고 눈먼 처녀는 엇듣고 있다. 그 처녀는 눈이 멀었고, 산지기의 딸이니까 가난하고, 그래서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은 안으로 안으로만 뭉쳐지고 피땀하게 우는 꾀꼬리 울음에서 언뜻 제 설움을 발견하게 된다. 처녀는 바깥의 아름다운 세상이 무척이나 그림자다. 그러나 처녀의 이 그리움과 욕구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처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설주에 기대어 그 아름다운 세계의 소리나마 엇듣고자 한다. 여기에서 꾀꼬리의 "울음-한"과 눈먼 처녀의 그것은 하나를 이루고, 거꾸로 "외딴 봉우리-외딴 집"의 외로움으로 되돌아간다. 한국 여성의 한과 설움의 결정을 맛보게 하는 작품이다.

또한 이 시는 극도의 회화적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전반부는 커다란 화면 구조 속에서 제시되고 후반부는 눈먼 처녀의 모습을 또렷하게 확대하여 보여준다. 외딴 봉우리, 외딴 집, 눈먼 처녀로 이어지는 공간적 이미지는 고독감과 애절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결국 <윤사월>은 간절한 삶의 충동이 펼쳐질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처한 눈먼 처녀의 그리움이 한가로운 산 속의 풍경과 미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함축성 있게 그려진, 토속적 서정을 탁월하게 표현한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2 자화상 운동주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자아성찰의 매개체/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매개체)**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객관적 성찰/ 관념적 행위(성찰)**을 구체적으로 표현)

▶ 우물을 찾아가 성찰을 시작함.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공감각(촉각의 시각화) 파아란 : 시적허용)**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열거,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 = 이상향↔'한 사나이'(초라한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

▶ 우물 속 평온한 풍경

그리고 **한 사나이(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현실적 자아, 부정적 자아 / 화자의 객관화)**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평화로운 풍경에 안주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미움)** 돌아갑니다.

▶ 우물 속 평온한 풍경 속 자신에 대한 미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식민지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한 연민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애증의 교차)**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순수한 본래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

▶ 자신에 대한 애증과 내적 갈등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공감각적 심상)**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우물 속에 비친 현실적 자아에서 이상적 자아를 발견(두 자아간의 화해)**)

▶ 추억 속 자신의 모습
- 운동주, '자화상'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성찰적, 고백적
- 어조 : 고백적 어조('~입니다')
- 특징
 - ① 평이한 구어체 사용
 - ② 산문적 표현
- 제재 : 우물 속의 자아
- 주제 :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 구조
 - 1연: 우물을 찾아가 성찰을 시작함.

- 2연: 우물 속 평온한 풍경
- 3연 : 우물 속 평온한 풍경 속 자신에 대한 미움
- 4연 : 자신에 대한 연민
- 5연 : 자신에 대한 애증과 내적 갈등
- 6연 : 추억 속 자신의 모습

■ 경향 : 나르시시즘적(的)-나르시스가 우물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하여 수선화가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와 맥이 통한다. 즉,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바탕으로 하여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하여 쓰인 것이다.

■ 화자의 심리 변화 : 미움 → 가없음 → 미움 → 그리움

▣ 이해와 감상1

1939년 9월에 지은 것으로, 운동주는 당시 연희전문 재학시절이었다. 이 시는 나르시스가 우물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하여 수선화가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와 맥이 통한다. 즉,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바탕으로 하여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하여 씌어진 것이다. 이 시에는 우물 속의 '사나이'가 등장하고 그를 들여다보는 '나'가 있다. 이 둘은 양분된 자아로서 부정(否定)과 긍정(肯定)을 거듭하다가 화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변증법적 구조다.

산문시의 부드러운 수사(修辭) 속에 비교적 행복한 자기 몰두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애증(愛憎)을 통하여 식민지 아들의 슬픔을 연연하게 부각시켜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는 점일 것이다.

'우물'은 운동주의 시에 자주 나오는 '거울'이나 '하늘'처럼 내 모습이나 생활을 성찰하는 매체이며 밀실의 심상도 포함되어 있다.

▣ 이해와 감상2

운동주의 시는 일제 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무장 독립 투쟁에 가담하지 못하고 국내에 남아 있는 자신을 끝없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성찰의 과정에서 쓰인 고독과 내면 성찰의 시이다. 운동주 시의 주제인 부끄러움과 성찰, 도덕적 순결성 등은 모두 시대의 암울함이 개인에게 가한 무게와 고통의 시적 표출이다. 1939년에 쓰인 이 시에는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면서 느끼는 젊은 시인의 자기 연민과 미움이 나타나 있다.

화자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행위이다. 우물이란 그 안에 담긴 물을 들여다보는 이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고, 또 물의 집으로서 우물 밖과는 분리된 새로운 세계이기도 하다. 우물 속에는 현실이 되 비친 새로운 사물들이 있고 그 새로움에 맞는 새로운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다.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자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흘러 가버린 과거와 과거의 자신이 혹은 전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그 안에 남아 있다 떠오를 수도 있다.

화자가 들여다보는 우물 속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는 곳으로 얼핏 보면 매우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나이' 즉,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려는 화자에게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던 자신의 미운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그는 돌아간

다. 가다 생각하니 그 미운 사나이가 '가연어' 돌아오게 되고 다시 '미워져' 돌아가다가 '그리워'져 다시 돌아오게 된다. 화자는 자신에게 미움을 느끼고 그 미움은 연민으로 연민은 그리움으로 변하는데, 이런 변화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내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일어난 감정이며, 도덕적 순결성으로 자신을 성찰할 때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운동주 시에 많이 나타나는 부끄러움은 '미움'으로, 미움이 심해질 때 그 반작용으로 연민이 생기고, 연민은 다시 부끄러움인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본래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진정한 성찰자의 모습인 '그리움'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물 속은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과 '가을'이 있는 또 다른 세계이고 그 안에는 '추억'이라는 또 다른 시간의 흐름이 화자의 진정한 성찰과 인간적 고뇌 속에 존재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3

전 6연으로 된 이 시는 산문처럼 쓴 자유시다. 제 1연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나'는 논가 외딴 우물을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본다. '외딴', '홀로', '가만히'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물'은 거울의 심상과 통한다.

제 2연은 우물 속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달, 구름, 하늘, 바람 등 자연의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이 전개된다. 이 자연의 묘사는 나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파아란 바람'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제 3연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사나이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고와 보일 리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미워져 우물을 떠나는 것이다. 일종의 자기 혐오(厭惡)다.

제 4연은 그러나 돌아가다 생각하니 이러한 자신이 가연어진다. 자기 연민(憐憫)이다. 그래서 다시 가서 들여다본다.

제 5연은 들여다보니까 그 사나이가 다시 미워진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 자신에 대한 애증(愛憎)이 교차한다. 여기서 '미워지는' 것은 무기력하게 좁은 공간에서 안이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자신이 밉다는 것이고, '그리워진다'는 것은 순수하게 살던 옛날의 자신의 모습, 또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리워진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다. 다음 연에 나오는 '추억'이라는 말과 관련이 된다.

제6연은 우물 속의 아름다운 배경을 묘사하고 그 곳에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고 했다. 즉, 이상(理想)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정(想定)해 본 것이다. 두 자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장면이다. '추억(追憶)'은 그리움이나 동경(憧憬)의 뜻과 통한다.

운동주는 유년 시절을 항상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그리워했다. 그의 다른 시 <별 헤는 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시대 상황의 고뇌를 겪으면서 현재 자신의 생활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면서 살았다. 이런 두 개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미워도 하고 그리워도 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이 시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3
두보나 이백같이 백석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시적 상황, 음력 1월 15일,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다' 반복)
대보름 명절인데(가족들이 모이는 시간, 공동체적 삶,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나(화자)는 멀리 고향을 나서(고향을 떠남) 남의 나라(타국) 쓸쓸한 객고(화자의 정서)에 있는 신세로다(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白)(당나라의 시인)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화자가 중국에 있음)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화자가 현재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을 '두보나 이백'을 떠올리고 있음)
▶ 1-5행 : 대보름 명절에 객지에서 쓸쓸함을 느낌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가정)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고향에서 대보름을 맞는 모습)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공동체적 삶이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현재의 처지와 대비)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현재 화자의 초라하고 쓸쓸한 처지)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가 드러남)
▶ 6-10행 : 고향 집에서 명절을 보냈던 과거 추억을 현재와 대비함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4행의 변주)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두보와 이백의 삶에 투영함)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같은 고향 출신 또는 조선인)의 조그마한 가업집(길가에 있는 가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고향 또는 조선의 음식)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타향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대보름)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4행의 변주)
이날(대보름 명절)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 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떡국과 같은 의미) 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외로움과 쓸쓸함을 해소하려는 자신의 행동과 두보와 이백의 행동을 상상하여 연결함)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두보와 이백, 고결한 정신)
먼 훗날 그들의 먼 후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대보름 명절)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두보나 이백이, 자신들의 후손들도, 자신들과

같이 타관에서 외로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떡국 :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면서 화자에게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함)

▶ 11-25행 :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와 연결함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타국의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음성 상징어)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뽕뽕(음성 상징어) 높아서(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화자가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을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자신과 동질적인 대상을 향해 상상적으로 투영하고 있음]

아무려나 이것(화자가 타향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은 옛 투(두보나 이백)의 쓸쓸한 마음이다

▶ 11-25행 : 시인들과 자신의 쓸쓸한 마음을 떠올림

- 백석, '두보나 이백같이'

* 역병 : 매우 많이.

* 반관 : 작은 중국 식당

* 원소 :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

* 느꾸어 :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라는 뜻의 평북 방언.

* 오독독이 : 오독도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의 하나.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이면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불꽃이 떨어진다.

* 호궁 : 중국의 전통 현악기의 하나.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하다.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서정적, 애상적, 사실적

■ 어조 : 쓸쓸하면서도 그리움이 느껴지는 어조

■ 특징

- ① 화자의 처지를 두보와 이백과 비교하고 거리의 풍경과는 대조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대비적인 상황을 통해 쓸쓸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법과 설의법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정적 상황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제재 : 타향에서 맞는 정월 대보름

■ 주제 : 타향에서 느끼는 쓸쓸함

■ 구조

- 1-5행 : 대보름 명절에 객지에서 쓸쓸함을 느낌.
- 6-10행 : 고향 집에서 명절을 보냈던 과거 추억을 현재와 대비함.
- 11-25행 :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와 연결함.

- 26-30행 : 시인들과 자신의 쓸쓸한 마음을 떠올림.

▣ 해제

이 작품은 시인 백석이 정월 대보름 명절을 중국 땅에서 맞이하는 감회를 읊은 시이다. 명절날 타국에 홀로 있는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쓸쓸하고 비참한 처지를 두보나 이백의 경험과 대응시켜 일반화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백석(1912~1995)의 시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는 시인 백석이 정월 대보름 명절을 중국 땅에서 맞이하는 감회를 읊은 시이다. 개인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에도 명절에 혼자 있기는 쓸쓸하기 마련인데 1940년대의 가족과 마을 사람, 친족 중심이었던 시절에 타국에서 혼자 명절을 맞이하는 시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해진다. 원래 음력 선달 그믐날부터 정월 대보름날까지는 전통적으로 마을마다 부정 타지 않도록 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다. 세 가지 부정이 있는데 마을에 이방인이 오거나, 여자가 아기를 낳거나 사람이 죽으면 그 해는 정월 대보름 축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축제 이전의 마을은 피 부정이나 낯선 이의 침입이나 죽음을 맞는 등을 부정을 피하고 축제 이전의 고요한 상태로 금기를 지키고 난 뒤에는 마음껏 쇠소리를 내고 난장을 벌였다. 정월 대보름날은 마을 사람들이 팽과리 소리를 내며 즐기고 새벽에 귀밝이술을 마시고 부럼을 깨물며 약밥, 오곡밥 따위를 먹는 등의 축제를 벌였다. 지금도 동해안이나 남해안 등의 시골이나 각지의 국사당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기하여 무당들의 굿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대단한 집단적인 축제의 날에 타국에 홀로 있는 시인의 심정은 다음과 같은 대립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고향(과거)	타관(현재)
친척과 가족	외롭고 쓸쓸한 처지
새옷, 새신을 신다	때 묻은 곳을 입다.
떡, 고기를 억병으로 먹다	마름 물고기 한 토막을 먹다

말하는 이는 명절날 타관에서 혼자 보내는 자신을 쓸쓸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두보(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712~770).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공부(工部)노두(老杜). 율시에 뛰어났으며, 긴밀하고 엄격한 구성, 사실적 묘사 수법 따위로 인간의 슬픔을 노래하였다. '시성(詩聖)'으로 불리며,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꼽힌다. 작품에 <북정(北征)>, <병거행(兵車行)> 따위가 있다.)와 이백(중국 당나라의 시인(701~762).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젊어서 여러 나라에 만유(漫遊)하고, 뒤에 출사(出仕)하였으나 안사의 난으로 유배되는 등 불우한 만년을 보냈다. 칠언 절구에 특히 뛰어났으며, 이별과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현종과 양귀비의 모란연(牧丹宴)에서 취중에 <청평조(淸平調)> 3수를 지은 이야기가 유명하다. 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대하여 시선(詩仙)으로 칭하여진다. 시문집에 《이태백시집》 30권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인용)과 대응하여 비교한다.

중국의 시인, 두보와 이백	조선의 시인, 백석
중국 땅	중국 땅
타향살이의 시가 많다	타향살이의 시가 많다

백석 자신이나 두보나 이백, 세 사람 다 시인이고, 중국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시를 많이 썼다는 등의 공통점에서 두보나 이백과 자신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 두보나 이백이 중국 사람이어서 타향에서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원소라는 떡을 먹으며 고향을 그렸다면 조선인인 백석 자신은 고향 사람의 가업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떡국을 먹으며 고향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백석은 정월 대보름날 타향살이를 하는 조선의 시인인 자신을 신세 한탄으로 끝맺지 않고 중국의 두보나 이백처럼 고고하고 품격 있는 시인과 동급으로 끌어올렸다. 명절날 객고를 느끼는 두보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다.

중양절에 홀로/ 술을 마신다/ 병든 몸 이끌고/강 위의 누대에도 올라본다
 죽엽주(竹葉酒) 이 좋은 술도/ 이제 그만 마시자/ 꺾어 놓을 국화꽃도/ 다 소용없다/
 타향살이 저문 날에/ 원숭이는 울어쌍고/서리 내릴 날 아직 멀었는데도/
 고향의 흰기러기가 날아온다/ 아우와 여동생들은/
 지금은 어디 사는지/ 다 늙은 몸 이 전쟁통에/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중양절」(2수), 정양, 박완식 번역, 이회출판사, 1996)

이들 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백석이 명절날 타관에서 떡국을 먹으며 고향과 조상을 생각하듯이 두보도 명절날 타관에서 전통적인 원소라는 떡을 먹으며 고향과 가족을 생각할 것이라는 전통이 이어져 오는 원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명절이 갖는 원형적인 풍습이 한 가족과 한 민족을 묶어 주는 질긴 연결고리임을 알 수 있다.

(출처, 국립국어원)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3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고정희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무덤(죽음과 소멸의 이미지 환기)에 잠드신 어머니는(그리움의 대상)
선산 뒤에 큰 여백(어머니의 부재를 추억과 위로라는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임)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반복)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시공간적 배경)
적송밭 그 여백 아래(어머니의 무덤가)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도시에서부터 따라온 시름과 번뇌)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온갖 잔소리들이 사라짐을 시각화함)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활유법)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역설적 표현, 온갖 번뇌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백을 만들어냄)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다시 사라지는 온갖 잔소리들)
▶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위안을 얻음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어머니의 부재 뒤에 느끼는 추억)이여 뒤안길(추억)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역설적 표현)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비유, 화자의 깨달음)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역설적 표현, 부재가 소멸이 아닌 새로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깨달음, 순환론적 세계관)
▶ 여백의 의미에 대해 깨달음
나(화자)도 너(칭자, 독자)로부터 사라지는 날(소멸의 이미지)
내 마음의 잡초(시름, 번뇌) 다 스러진 뒤(소멸의 이미지)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직유),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음성 상징어)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직유)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화자의 소망, 노을과 시냇물과 같이 누군가에게 위안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음)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함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서정적, 관념적, 추상적, 성찰적
- 어조 : 쓸쓸하면서도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
- 특징
 - ① 부재를 여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냄
 - ② 부재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냄
 - ③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 화자의 깨달음과 정서를 강조함
 - ④ 비슷한 구절의 반복과 각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제재 : 어머니의 부재
- 주제 : 부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구조
 - 1연 :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위안을 얻음
 - 2연 : 여백의 의미에 대해 깨달음
 - 3연 :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함

▣ 해제

이 시는 독백체로 되어 있다.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서울의 온갖 잔소리를 잊는다.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더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무덤 속에 누운 어머니의 무언(無言). 그 여백이 화자에게는 큰 가르침이 된다. 공간에는 포용력 있는 사랑이 가득하다. 어머니의 부재와 나의 부재가 너에게 여백이 된다.

▣ 이해와 감상

고정희 시인은 미래를 열고 세상을 품는 것은 여성이라고 역설한다. 이때 '여성'은 모든 억압을 초월한 '모성(어머니)'으로 나타난다. 시인은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해 주었듯, 더 나아가 내가 너에게 해 주듯, 모든 존재가 모성(母性)과 같은 포용성('큰 여백')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 혹은 '내 마음의 잡초'와 같은 세상의 갈등과 화해하기를 노래한다.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이 대립과 갈등을 사랑으로 보듬어 내는데, 이때 '어머니'는 '부재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이 시는 부재하는 대상이 만들어 낸 여백을 통한 새로운 창조(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 시에 나타난 '어머니'는 인간이 포용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구함을 구체화한 것인 동시에,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아우르는 조화로운 인간의 이상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4 꽃 이육사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동방(우리나라)은 하늘도 다 끝나고(절망적 현실, 한계 상황)
비 한 방울 나리잖는(절망적 현실, 한계 상황) 그 땅에도(우리나라, 절망적 공간)
 오히려 꽃(생명과 희망, 저항 의지, 강한 생명력)은 발각게 피지 않는가(역설법, '꽃'의 강한 생명력)
 내 목숨(개인적 안위)을 꾸며(꿈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영탄법, 의지 강조)
 ▶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절망적 현실, 한계 상황)
눈 속 깊이(절망적 현실, 한계 상황) 꽃맹아리가 움작거려(생명과 희망, 저항 의지, 강한 생명력)
제비 떼(봄, 희망, 밝은 미래)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봄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희망이 올 것에 대한 확신)
 ▶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한바다 복판 용솨음치는 곳(광복의 환희가 역동적으로 용솨음치는 미래의 조국)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희망의 미래)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광복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민족)
 오늘 내 여기서(희망의 미래가 반드시 올 곳으로 현재는 절망적 공간) 너를 불러 보노라(영탄법, 의지 강조)
 ▶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 이육사, '꽃'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상징적, 저항적
- 어조 :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 특징
 - ① 상징에 의한 암시적 표현
 - ② 자연 현상을 인간사에 적용하여 시상을 전개
 - ③ 선경후정의 한시 구조가 엿보이며 점층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짐
 - ④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 사용
 - ⑤ 극한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강한 의지 강조
- 제재 : 꽃
- 주제 :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
- 구조
 - 1연 :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
 - 2연 :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 3연 :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 해제

첫머리에 나오는 '동방(東方)'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때'는 혹독한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1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라는 혹독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놓여 있다는 시인의 인식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극한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빨갭게 피는 그 꽃은 이런 희망을 의미할 것이므로. 이 희망은 사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의지(그리고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라고 말하고 있다. '꿈을 꾸며'라는 표현 대신 '내 목숨을 꾸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해방을 꿈꾸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2연에서 시인은 이런 희망이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찬 새벽 툰드라에 쌓인 눈 밑이 상징하는 극한 상황에도 희망(꽃맹아리)이 살아 있으며, '꽃맹아리'들이 기다리는 제비 떼 가득한 봄은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제비 떼가 날아오는 계절인 봄은 물론 해방의 날을 상징한다.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시인은 3연에서, 미래에 반드시 올 그날의 감격을 미리 만끽하고 있다. 바다 한 가운데서 용솨음치는 물결은 우리 민족이 가지게 될 역동성을 의미할 것이며, '꽃 성'은 소망이 실현된 해방의 날을 의미할 것이다. 1연의 '꽃'이나 2연의 '꽃맹아리'가 해방의 날에 대한 희망이라면, 그 꽃이 성을 이루었다는 것은 희망의 실현, 즉 해방을 상징하지 않겠는가? 이 '꽃 성' 속에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해방을 맞아 일제 강점하의 현재를 돌아보며 감격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일 것이다.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에 나타나듯, 시인은 미래의 그 날을 머릿속에 미리 그려보며 벅찬 희망에 잠기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흔히 <절정>과 비교되곤 한다. 서정적 자아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서 시상을 열었다는 점, 그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신적 높이를 제시했다는 점 등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1연의 1행과 2행은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하늘도 다'의 '도'와 '다', 그리고 '한 방울'은 그 상황의 절박함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하늘도 끝났다는 것은 '땅'도 끝났다는 의미이고,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끝난 것이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현실의 은유다. 그러나 서정적 자아는 부사어 '오히려'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계기를 마련해 놓는다. 현실이 가혹할수록 그 현실과는 반대로 꽃이, 그것도 '빨갭게' 피어난다고 그는 믿는다. 3행의 의문문은 이러한 신념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다. 그는 꽃이 빨갭게 피어날 때까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을 보내겠다고 외친다.

2연도 1연과 시행 배열이 유사하다.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과 '눈 속 깊이'역시 거친 현실의 은유다. 하지만 서정적 자아는 그 가혹한 환경보다는 '꽃맹아리가 움직'거리는 데 주목한다. 미약하게나마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머지않아 봄이 되면 제기가 때를 지어 날아올 곳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우연이나 예외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즉 봄이 되면 언제나, 반드시 제비 떼가 하늘을 까맣게 덮으며 날아오는 법이다. 서정적 자아는 그 일에 관한 자기 신념을 영탄조로 고백하는데, 부사어 '마침내'는 그 신념의 견고함을 절실하게 드러낸다.

1연과 2연에서 제시되었던 가혹한 환경을 디디고 피어난 꽃은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용솨음치는 물결처럼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의 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서정적 자아는 온갖 시련을 견디면서 움직거

린 꽃망아리가 빨갭게 피어나서 온 세상을 뒤덮은 날을 역동적으로 제시한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이 되면 서정적 자아는 자기 이웃들과 함께 현재의 고달팠던 삶을 회상하며 기뻐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회상의 무리들'은 특정한 미래의 어느 날 현재를 돌이켜보는 상황을 가정한 표현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소망이 한낱 공상에 그칠 거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그날은 도저히 안 올 것 같지 않은가. 서정적 자아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빈정거림, 나약함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오늘 내 여기서'라고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투박하게 말한다면 이 시는 '비가 안 내려도 꽃이 피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여기에서, 빨갭게 핀 꽃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할, 너를 불러 보는 거야'라는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시적 자아는 현재에 이미 미래에 대한 신념,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엄숙한 느낌을 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각 연을 똑같이 4행씩 배열하여 반복함으로써 이 작품은 주제를 한결 강렬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각 연에서 1행보다 2행이, 2행보다 3행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짐에 따라 호흡이 점점 빨라지는 특성을 지녔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4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한겨울 못 잊을 사람(사랑하는 사람)하고

한계령(사랑과 운명의 공간)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사랑하는 사람과 돌만 고립되어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은 소망, 역설적)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원관념: 폭설- 폭설에 대한 화자의 인식, 긍정적)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활유법)

제 구멍들(목적지)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한계(寒溪)를 한계(限界)로 생각함. 언어유희, 세상을 잊고 연인과 지내고 싶은 마음)

▶ 한계령에서 폭설로 고립되는 상황에 대한 가정

오오(영탄법), 눈부신 고립(역설법)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고립의 상황을 아름답게 표현)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물리적 고립을 넘어선 운명적 사랑에 대한 간절함)

▶ 운명적 고립에 대한 소망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고립으로 인한 현실적 두려움)

헬리콥터(구원의 존재)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사랑하는 사람과의 운명적 고립에 대한 간구, 고립을 원하는 역설적인 마음)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헬리콥터의 긍정적인 기능, 산 생명을 구조하는 도구)

▶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고립에 대한 의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헬리콥터의 부정적인 기능,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전쟁터: 헬리콥터-살상의 도구 ↔ 산 생명을 구조하는 도구)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헬리콥터의 긍정적인 기능, 산 생명을 구조하는 도구)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생존에 대한 절박함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운명적 고립을 택하고 싶은 간절함, 변주)

▶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고립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

아름다운 한계령(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고립된 곳)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되는 것을 행복하게 인식함, 사랑의 간절함)

▶ 사랑하는 이와 의 고립은 축복이라는 역설적 인식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역설적, 낭만적, 의지적, 감각적

■ 어조 : 독백적이면서 간절한 어조

■ 특징

- ① 언어유희나 비유를 통해서 표현의 효과를 높임
- ②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③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고조된 정서를 드러냄
- ④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형상화함
- ⑤ 역설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 ⑥ 동화적, 비현실적 분위기로 사랑에 대한 화자의 낭만적 소망을 아름답게 부각시킴

■ 제재 : 한계령

■ 주제 : 역설적 상황을 통한 사랑의 간절함

■ 구조

- 1연 : 한계령에서 폭설로 고립되는 상황에 대한 가정
- 2연 : 운명적 고립에 대한 소망
- 3연 :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고립에 대한 의지
- 4연 :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고립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
- 5연 : 사랑하는 이와 의 고립은 축복이라는 역설적 인식

▣ 해제

이 작품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폭설로 인해 한계령에 고립되는 조난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강렬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자의 소망은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는 의지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조난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구조를 거부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상반된 역설적 상황 인식으로서 이 시의 개성적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에서는 한겨울 폭설로 인해 한계령에 조난을 당하는 가상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보통 이러한 조난의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시적 화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이 된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 해도 시적 화자는 구조의 손길을 기꺼이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시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의 설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강렬한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시에 등장하는 '못 잊을 사람'은 분명히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못 잊을 사람'은 시적 화자와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를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 연에서 시적 화자가 한계령에 고립된 상황을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에 등장하는 '못 잊을 사람'은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못 잊을 사람'은 시적 화자가 짝사랑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대상이거나, 서로 사랑했지만 비극적 이별을 해야 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결국 '못 잊을 사람'에 대한 다양한 설정의 가능성은 독자로 하여금 이 시를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5
산상의 노래 조지훈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높으디높은 산마루(화자의 위치, 인고의 극한적 공간)

낮은 고목(古木)(생명력을 상실한 존재, 국원을 상실한 조국)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외로움과 고독) 긴 밤(일제 강점기 어두운 현실의 지속)을

무엇(조국 광복)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조국 상실의 슬픔, 광복에의 염원이 절실함)

▶ 광복을 염원한 화자의 간절함

아아(영탄, 광복을 맞은 감격) 이 아침(광복)

시들은 핏줄(일제 강점기 동안 생명력이 훼손된 민족의 처지)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조국 상실의 슬픔과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했던 가슴)

은은히 울려오는(확산의 이미지) 종소리(부정적 현실의 해소, 희망과 재생의 소리).

▶ 광복의 아침을 맞이한 감격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광복을 맞이한 아름다운 현실)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내려 떨어던 섯별(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지켜왔던 광복에의 염원)아 숨으라.

▶ 광복을 맞이한 민족의 현실

환히 트이는 이마 우(광복으로 인한 변화된 세계, 밝음, 시각적 심상)

떠오르는 햇살(간구하던 현실의 도래, 상승의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화자의 감격,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 영탄적)

▶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

메마른 입술(일제 강점기 동안 생명력이 훼손된 민족의 처지)에 피가 돌아(민족적 생명력을 회복해 가는 모습)

오래 잊었던(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시 창작 등이 자유롭지 못하던 현실)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침묵의 고통에서 벗어남)

▶ 회복되어 가는 민족의 정기

새들 즐거이(감정 이입) 구름 끝에 노래(광복의 기쁨) 부르고(의인화)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의 모습)

▶ 광복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조망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화자가 있는 공간,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공간)

맑은 바람 속(1연과의 대비, 부정적 현실이 해소되고 미래에 대한 염원을 품고 있음)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광복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새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 조지훈, '산상의 노래'

*사양: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함. 또는 남에게 양보함.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지사적, 감각적

■ 특징

- ① 비슷한 내용의 연과 행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 ③ 설의적 표현과 명령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냄
- ④ 변형된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처지와 자세를 드러냄
- ⑤ 비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의 감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함

■ 제재 : 산상의 밤과 아침

■ 주제 : 광복의 기쁨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 구조

- 1연 : 광복을 염원한 화자의 간절함
- 2연 : 광복의 아침을 맞이한 감격
- 3연 : 광복을 맞이한 민족의 현실
- 4연 :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
- 5연 : 회복되어 가는 민족의 정기
- 6연 : 광복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조망
- 7연 :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 해제

이 시는 광복을 맞이한 시적 화자의 기쁨을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하지만 시인은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민족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 광복 전의 화자의 모습을 '시들은 핏줄', '메마른 술' 등으로 표현하여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에 '종소리'와 '피'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광복을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또 다시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다. 과거처럼 울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선구자로서의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총 7연 25행으로 이루어진 자유시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 염원했던 과거와 해방을 맞이한 현재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과제 등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는 국권을 상실한 조국을 상징하는 '낮은 고목'에 기대어 조국 해방의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2연에서 6연까지는 해방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2연에서는 '종소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고 있으며, 3연에서는 '꽃다운 하늘'과 '새별'의 상징을 통해 해방의 기쁨과 광명이 환희를 노래하고 있다. 4연에서 6연까지는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4연에서는 '시월상달'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예감하고 있으며, 5연에서는 '오래 잊었던 피리'를 통해 문학 창작의 꿈을 다시 지피고 있으며, 6연에서는 앞으로 노래할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다. 마지막 7연에서는 다시금 산마루에 서서 6연에서 제시한 미래의 이상향이 도래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사슴과 토끼는 /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사슴과 토끼는 먹이사슬에서 초식동물에 해당되는 짐승으로 약자에 속한다. 그들은 항상 육식동물의 공격에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부족한 먹이를 찾아서 경쟁해야 한다.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만하다. 이 구절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암시하고 있다. 사슴과 토끼 같은 가장 약한 짐승들이 서로 먹이를 양보하는 세상, 그것은 세상의 약자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다. 시인이 꿈꾸는 해방된 조국의 이상향이기도 하다.

조지훈의 1945년 작인 이 시는 민족 해방을 위한 기다림과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 그리고 해방 후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고민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는 원래 1945년에 발간된 <해방기념시집>에 실렸던 시답게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과제를 고민하는 시적 자아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의 제목인 '산상의 노래'는 산의 정상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해방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고양된 정신 상태에서 미래의 과제를 모색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총 7연 25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방을 기원하던 과거의 염원을 다룬 1연, 해방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2연에서 6연,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7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연에서는 해방을 위한 오랜 인고의 세월의 고통과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늙은 고목(古木)'은 국권을 상실하고 생명력이 고갈된 조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시적 자아는 그러한 고목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시 소생하기를 기원하는 내면의 갈망을 "늙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간구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긴 밤'은 국권 상실이 야기한 고통의 정도를 표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고의 세월이 오래 되었음을 표상하며, 해방을 위한 갈망 또한 가열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연에서 6연까지는 해방의 환희와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시적 자아는 '종소리'가 '시들은 핏줄의 굽이굽이로 /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울려 퍼진다고 진술하면서 해방이 몰고 온 가슴 벅찬 희열과 새로운 생명력의 도약을 예찬한다. 3연에서는 '꽃다운 하늘'을 통해 해방이 몰고 온 개벽과도 같은 새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이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소임을 다했음을 고백한다. 어둠 속에서 셋별을 바라보면서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던 갈망이 기적처럼 실현되었음을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4연에서 6연까지는 해방으로 인해 변화된 시적 자아의 내면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묘사된다. 4연에서 시인은 '환희 트이는 이마', '떠오르는 햇살' 등의 상승과 밝음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자아의 환희에 찬 내면 풍경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월상달의 꿈'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시적 자아가 지닌 미래의 희망과 꿈을 표현한다. 5연에서 시적 자아는 오랫동안 자국어로 시를 쓰지 못했던 암울했던 시절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시를 쓰게 된 기쁨을 노래한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었다는 표현을 통해 시를 짓게 된 정황을 암시하며, '오래 잊었던 피리의 / 가락을 더듬노니'에서 새로운 문학의 창작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시적 자아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

6연은 시인이 노래할 시의 세계가 제시되는데, 그것은 유토피아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새들은 즐거이 노래하고 사슴과 토끼는 서로 '향기로운 싸릿순'을 양보하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의 모습을 노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7연에서는 그러한 세계가 결코 쉽게 도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며, 그러한 세계를 향한 열망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내 홀로 긴 밤을 /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라고 노래했던 시적 자아는 다시 마지막 7연에서 '내 홀로 서서 /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라고 하면서 독립된 민족국가의 실현을 통해서 6연에서 노래했던 그러한 이상향이 도래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5 꽃덥불 신석정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태양(밝음, 희망, 광복)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광복을 위한 노력)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만 비롯하였다.

▶ 일제 강점기의 독립 투쟁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터(국권을 상실한 조국)를 헤매이면서(민족 구성원의 암울한 삶, 광복을 위한 노력)

언제 참으로 그 언제(광복이 요원해 보이는 일제 강점기의 절망감 강조, 반복)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광복)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안타까움)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광복을 위한 노력 강조, 반복)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 조국 독립을 위한 의지와 노력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죽음)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벗(유랑)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변절)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전향)도 있다(①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함 ② 죽음, 유랑, 변절, 전향 등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 상황)

▶ 애국 투사의 죽음과 방랑, 변절, 전향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간절한 기다림의 성취) 서른여섯 해(1910-1945)가 지나갔다(한 행을 연으로 구분함으로써 선언적 의미 강화, 일제 강점기의 종식)

▶ 일제 강점기의 종식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성찰)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광복 후 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

오는 봄(혼란과 갈등이 해소된 진정한 광복의 상태)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광복 후 혼란과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을 안고

그 어늬 언덕 꽃덥불(민족의 자주 독립과 화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조국)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민족 공동체 구성의 소망과 기대

- 신석정, '꽃덥불'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서술적, 비판적, 현실비판적, 미래지향적

■ 어조 : 의지적, 비판적, 회상적인 어조

■ 특징

①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 사용

- ② 반복을 통해 표현 효과를 높임
- ③ '과거-현재-미래'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 및 정서의 강조

■ 제재 : 꽃뎀불

■ 주제 :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수립의 염원

■ 구조

- 1연 : 일제 강점기의 독립 투쟁
- 2연 : 조국 독립을 위한 의지와 노력
- 3연 : 애국 투사의 죽음과 방랑, 변절, 전향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 4연 : 일제 강점기의 종식
- 5연 : 민족 공동체 구성의 소망과 기대

■ 해제

1946년에 쓰인 이 시는 단순히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되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바라보는 화자의 염려와 진정한 광복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암울한 현실 상황에도 '태양'을 모시려는 온갖 노력과 간절한 염원으로 조국 광복을 이루었으나, 광복 후 심화되는 민족의 분열상은 아직 '겨울밤'이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화자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자연의 순리대로 진정한 민족 화합의 날이 올 것을 믿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1946년의 '해방 기념 시집'에 실린 작품이다.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광복된 조국의 희망을 노래했다. 식민지 시대의 체험을 다룬 시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 시 또한 '어둠과 광명'이라는 대립적 이미지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 연의 의미를 특별히 주목할 만한데, 여기서 시인은 광복이 되었음에도 아직 좌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시련을 겪는 당대의 상황을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고 집약하면서 장차 이루어야 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태양'과 '꽃뎀불'로 표현했다.

제2연에서 시인은 식민지 치하의 어두운 시대를 회상한다. '혈어진 성터를 헤메이면서'라는 구절은 곧 식민지 시대의 황량하고 음울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민족적 체험의 집약이다. 성(城)이라는 것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집단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거대한 건축물임을 생각한다면, 혈어진 성터가 국권의 상실 및 민족적 시련의 비극을 은유하는 것임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 자립의 광명을 갈망하던 절실한 심정이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라는 반복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어 제3연에서 시인은 지난날의 쓰라린 기억을 되새긴다.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멀리 떠나고, 어떤 이는 욱된 굴복 또는 타협의 길을 택했다. 이러한 상실이야말로 어떤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네 줄의 반복형 문장들이 말해 준다.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넘어 이제 조국을 되찾은 시점에서 그러나 시인은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고 말한다. 비록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민족 국가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채 혼란과 갈등이 격화되는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는 근심스러운 시선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 국가 안에서 성취해야 할 미래를 그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과 '꽃뎀불'이라는 눈부신 이미지로 표현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 사령 김수영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말줄임표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활자화된 '자유'를 부각하고, 자유롭지 못한 시대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함) 활자(자유와 정의에 대한 글이나 책으로 '벗', '그대'와 호응)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실천을 촉구함)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성찰

벗(활자, 책 속의 진리, 화자가 자신의 영이 죽어있다고 느끼게 하는 존재)이며

그대(활자, '벗'을 호칭하는 2인칭 대명사)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함, 비겁함, 소심함)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실천하지 않고 결단력 없는 삶을 치욕으로 받아들임)

마음에 들지 않아라

▶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유사한 문장의 반복으로 의미 강조)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현실의 거짓된 평화)

저 고요함(불의에 침묵하는 삶의 모습, 비겁함, 무기력함)도 이 고요함도

▶ 자유를 잃어버린 삶에 대한 불만족

그대의 정의(활자, 즉 책 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나약함의 의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이 욕된 교외(행동이 삶이 아닌 죽음에서 나오는 공간. 진정한 행동이 펼쳐지지 못하는 공간, 자유와 정의가 부재하는 공간)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및 그러한 삶이 지속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동격 의미를 지닌 보조사 '도'의 반복을 통해 부정의 효과를 강조함. 또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됨)

▶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자괴감

그대(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화자의 자괴감)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자조적 반성)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자괴감
- 김수영, '사령(死靈)'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주지적, 비판적
- 어조 : 자유와 정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자아를 반성하는 '자성적 어조'
- 특징 : 일상적 어휘와 독백적 진술을 사용하여 자유와 정의가 소멸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지식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제재 : 부도덕한 현실과 지식인의 죽은 영혼
- 주제 :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괴감
- 구조
 - 1연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성찰
 - 2연 :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 3연 : 자유를 잃어버린 삶에 대한 불만족
 - 4연 :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자괴감
 - 5연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자괴감

▣ 해제

이 시는 '죽은 영혼'이라는 뜻의 제목이 암시하듯 자유와 정의가 활자로만 존재하는 부도덕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시인 자신의 영혼을 자책하고 비판하는 작품이다. 자유와 정의가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 사회라 할 수 없으며,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진리도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화자는 '예언적 지성'으로 불리는 시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시민적 지식인으로 전락해 버린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여긴다.

현실의 부도덕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분노는 현실과 자아 일체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그것은 지식인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고 비판과 저항의 정신이湧출(湧出)하기를 희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파악하는 현실은 자유와 정의가 상실된, 책으로만 위장되어 있는 거짓된 세계이다. 이러한 현실 세계의 부도덕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행동화하지 못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분노는 결국 현실과 자기 자신 모두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거짓된 현실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겠다고 다짐해 보기도 하지만,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수반하는 것임을 아는 화자는 다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며 절망할 뿐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솔직한 자기반성의 모습을 반복,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 모두의 타협적 행동을 준엄하게 추궁함은 물론, 나아가 그들에게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 주술적 힘을 보여 주기도 한다.

▣ 이해와 감상

일반적으로 김수영의 시 세계는 정직과 사랑과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세 개념은 별개로 존재한다기보다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를 읽는 독자에 따라 정적으로 자유와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자유로써 정직과 사랑을 포괄하기도 한다.

『사령(死靈)』의 핵심어는 '자유'이다. 그런데 그 자유는 시인이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적의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근대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규범 가운데 하나인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비민주적 사회라는 지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화자(시인)는 자유가 억제된 독재 정권에 항거하지 못하

는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 흔히, '예언적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작가와 시인은 독재자의 부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의 사회의 구현을 위해 신명(身命)을 바칠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은 독재 정권에 기생(寄生)하여 개인의 부귀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사회이다. 자유를 말하는 벗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화자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한다. 이것은 자신의 비겁함과 소심함을 자책하는 의미로 읽힌다.

화자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은 자유와 정의가 부재한 거짓된 공간이다. 거짓된 공간은 외면적인 고요로 위장되어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따라서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격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행동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수반한다. 이런 현실에 화자는 절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자가 희망하는 자유와 정의가 보장된 사회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제1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면서 종결되는 이 시의 결구는 화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준다. 그것은 나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현실 개혁의 운동에 앞장서자는 비판적 지식인의 솔직한 자기반성의 태도이다. 이런 자기 반성적 태도가 전제될 때, 비로소 자유와 정의는 서적 속의 관념에서 현실의 가치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정호승 분석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나(화자)는 왜 아침 출근길(시간적 배경)에
구두에 질편하게 오줌을 싸 놓은(화자가 분노하는 이유)
강아지(화자가 자신의 응졸함에 대해 스스로 꾸짖게 되는 계기, 약자)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반문을 통해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
운동주 시집(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화자가 강아지에게 화를 낸 구체적인 상황)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운동주와 같이 고결함)과 화자의 현실적인 모습(응졸함) 사이에서의 괴리를 느끼고 괴로워함)
 ▶ 1-8행 : 출근길에 구두에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에게 분노함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 생명 존중)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생명을 경시↔나)와
역살잡이까지 했던 내(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위선적이고 응졸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
 ▶ 9-13행 : 생명의 가치 평등을 주장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함.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 사랑, 배려, 존중, 인자함 등)이러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모습)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응졸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
 ▶ 14-17행 : 응졸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함.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 사랑↔강아지에 대한 화자의 행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 관용, 너그러움 등↔강아지에 대한 화자의 행위)
운동주 시인(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인물)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육체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삶)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정신적으로 응졸함)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순례자의 마음으로 경건하고 성스럽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엿볼 수 있음)가 될 수 있을까
 ▶ 18-22행 : 운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인생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램.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화자를 두려워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응졸함을 부각, 강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함.)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강아지보다 응졸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남.)

▶ 23-24행 :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함.
- 정호승,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반성적, 성찰적

■ 어조 : 독백적인 어조

■ 특징

- ①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② 의문형 표현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냄.
- ③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위선적 태도를 고백함.
- ④ 운동주 시인의 시집을 언급하며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줌.
- 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바람을 표출함.
- ⑥ 영탄적 어조로 자신의 옹졸함을 고백하여 마무리함.

■ 제재 : 강아지에게 화를 낸 일

■ 주제 : 위선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고백

■ 구조

- 1-8행 : 출근길에 구두에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에게 분노함
- 9-13행 : 생명의 가치 평등을 주장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함.
- 14-17행 : 옹졸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함.
- 18-22행 : 운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인생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램.
- 23-24행 :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함.

■ 해제

일상에서 경험한 일을 소재로 삼아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으로,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강아지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는가'와 '-을까'로 끝맺는 질문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한편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참회와 반성, 부끄러움의 정서가 중심을 이루는 '운동주 시집'을 상징적인 소재로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2004년 간행된 시집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수록된 작품으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배어 있다. 운동주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작가는 집 밖에서는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구두에 오줌을 싸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개새끼라고 말하며 구두를 내던졌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인간의 모순된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시이다.